

「21세기 제4세대 전쟁(다윗의 새총)」을 읽고

(원제 : The Sling and the Stone : On War in the 21st Century)

육대 전술3학처
소령 박 광 응

정치가와 지휘관이 판단해야만 하는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며 원대한 행동은 그러한 판단을 통해 그들이 수행 중인 전쟁의 유형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때 전쟁유형을 본질과 다른 것으로 오해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된다.

- 본문에서 인용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중에서 -

○ 서 론

이라크 전쟁은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자유작전(Operation : Iraqi Freedom)”이라는 암호명으로 미국과 영국 동맹군 주도로 개시된 후 43일 만에 종전이 선언되었다. 그 이후 국내적으로는 전쟁의 명분보다는 오히려 민간 군수업체들이 이득을 봤다는 평가, 국제적으로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확증을 찾아내지 못함으로써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쟁 자체를 승리로 이끌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

주 1) Thomas X Hammes의 The Sling and the Stone : On War in the 21st Century(St. Paul, MN. : Zenith Press, 2004)를 번역한 내용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힘이 약한 다윗이 다룰 수 있는 무기인 새총을 이용하여 힘이 센 골리앗을 상대한 모습을 바탕으로 힘이 약한 국가가 힘이 강한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새로운 전략을 묘사하였음.

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이라크전 실패원인을 분석한 연구들 중에서 많은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 바로 ‘제4세대 전쟁(the Fourth Generation Warfare, 4GW)’ 이론이다. 제4세대 전쟁은 ‘현대전’의 출발점을 30년 전쟁을 종결하며 1648년에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판단²⁾하고, 이를 기점으로 네번째 전쟁세대로서 이전의 전쟁과는 다른 전쟁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전쟁형태를 의미하며, ‘네트전쟁(netwar)’이라고도 불리운다.

저자인 토마스 햄스(Thomas X Hammes)의 「제4세대 전쟁」은 빠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나치게 첨단 기술전의 형태에만 관심을 가지는 미군의 전쟁 대비 모습에 대하여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전쟁에 대하여 바라보고 준비할 것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저술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저자의 의도가 우리군의 현실에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이 발발되었을 때 제4세대 전쟁이 수행될 수 있는가? 수행된다면 어떠한 형태로 수행되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우리군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느낀 점을 적어보았다.

○ 주요 내용

이 책은 서론 부분과 5개 부 1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 부분에서는 저자가 제4세대 전쟁에 대하여 연구하게 된 경과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든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진화하듯 전쟁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및 기술의 진화에 따른 논리적 산물로서 진화한다고 주장한다. 제4세대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기술이 진화한 데 따른 논리적 산물로서 오랫동안 진화해 왔으며, 이러한 진화는 모택동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체첸 사태까지의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화를 추적할 수 있

주 2)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통하여 민족국가들이 군사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관점에서 현대전의 출발점으로 판단하였음.

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현대전쟁의 네 세대’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며, 1세대로부터 3세대까지의 전쟁과 더불어 4세대로 전쟁이 진화할 수밖에 없는 배경인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4세대 전쟁은 상대방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그들의 전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없거나 또는 예상되는 이익에 비해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네트워크들(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네트워크)을 사용하는 전쟁으로 미국이 역사상 패배한 단 한 종류의 전쟁이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쟁 역시 3세대 전쟁에서 4세대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모택동의 인민전쟁(People's War)에서 제4세대 전쟁이 탄생되었으며, 베트남전 및 산디니스타³⁾ 등을 통하여 제4세대 전쟁이 조금 더 세련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모택동이 주장한 분란전 수행을 위한 3단계의 핵심은 1단계에서 분란자들은 주로 정치적 힘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2단계에서 근거지의 통제를 공고히 하며, 3단계에서 정부에 대한 마지막 공격으로 정규군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란전 수행을 위한 3단계는 베트남전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외부 후원국들의 정치적 의지를 패배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 “세력균형 관계의 변화” 개념을 다듬었고, 1961년에 결성된 니카라과의 무장혁명 조직인 산디니스타는 분란전 수행의 3단계에서 사용하는 최종적인 재래식 군사공격을 분란전의 필수요건으로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분란전을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켰다.

제3부에서는 인티파다⁴⁾로부터 알아크사 인티파다⁵⁾, 알카에다⁶⁾, 아프가니스탄 및 최근 이라크전 등을 통하여 제4세대 전쟁의 발달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인

주 3) 1961년에 결성된 니카라과의 무장혁명 조직. 1979년에 소모사 가문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1985년에 이들의 정부를 공식 발족하였다.

4) 1987~1993년 팔레스타인들(민중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와 팔레스타인 민족독립을 위하여 벌인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목표인 점령지 안정화와 지속적인 통치를 위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대중들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고자 하였으나, 팔레스타인 대중들은 비폭력적인 투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책결정자들과 국민들의 전쟁수행의지 자체를 붕괴시키고자 노력하였다.

5) 이스라엘 리쿠드당의 네탄냐후가 예루살렘의 가장 신성한 이슬람교 성지인 알아크사(al Aqsa)

티파다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비폭력적인 투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토를 양보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알카사 인티파다에서는 이스라엘이 제4세대 전쟁에 대응하는 모습을 설명한다. 또한, 제4세대 전쟁의 네트워크화된 초국가적 적의 모델인 알카에다의 분쟁 모습을 통하여 국가와 초국가적 조직 간의 큰 분쟁에서 알카에다가 내부의 이슬람교 청중과 외부의 미국 청중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위하여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부족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특이한 상황과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영국, 소련 등의 강대국 그리고 최초에는 군사력위주의 단편적 접근으로 실패하였으나 실패를 바탕으로 교훈을 얻어 4세대 전쟁의 모든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라크에서는 이라크전 종전선언을 실시한 2003년 5월 1일까지 부시행정부는 전쟁의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단기적인 첨단 재래전으로 종결하려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제4세대 전쟁, 즉 네트워크전이고 이를 수행한 이라크 반연합군의 강·약점 및 연합국의 강·약점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4부에서는 미 국방부가 전쟁의 인간적 측면보다 기술적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첨단 기술전은 적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략을 선택할 때에 타당하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며, 기술적인 우세가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 이익으로 전환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조직은 지나치게 계층적, 관료적이나 잠재적 적들은 네트워크로 조직되어 세계적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4세대 전쟁의 특성에 대하여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차원 등에서 제시하고 있다.

제5부에서는 미국의 제4세대 전쟁 대응전략과 위협평가 그리고 유연성 등에 대

사원 경내 근처에 있는 고대 동굴에 관광객용 출구를 신설하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시작된 분쟁으로 인티파다를 주도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권한이 PLO에 이양되고 강경파인 아라파트가 이스라엘에게 비무장이 아닌 무장으로 대항하여 일어난 분쟁이다.

6) 1989년에 아잠과 빈 라덴이 창설한 조직으로 아랍어로 '기지(the Base)'를 뜻한다.

하여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제4세대 전쟁 대응전략으로 미래를 완벽하고 정밀하게 예측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 기술보다는 사람에 중점을 두고 군의 유연성을 확립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위협평가에서는 미국의 관점에서 위협이 되는 2세대 및 3세대의 적들은 북한, 이란, 중국 등이고 4세대의 적은 분란자들, 중국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4세대 적은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CBRNE⁷⁾ 대응부대”, “헌병부대” 및 “중간 규모의 군대(Medium Weight Forces)” 등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이해한 것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고, 장교 교육이 미래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사와 진화 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도록 하여야 함을 설명한다.

○ 제4세대 전쟁은 무엇이며,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제4세대 전쟁’이라는 용어는 린드(William S. Lind)를 비롯한 5명의 저자들이 1989년에 「Marine Gazette」지에 기고한 논문⁸⁾을 통해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기점으로 민족국가들이 군사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면서 현대전이 시작되었으며, 그 후 계속되는 진화과정을 거쳐 3개의 뚜렷한 전쟁 세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나폴레옹 전쟁과 같은 횡대와 종대의 밀집대형전술(1세대 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 시의 엄청난 화력위주의 소모전(2세대 전쟁)으로, 다시 제2차 세계대전 시 전격전(Blitzkrieg)과 같은 기동전(제3세대 전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4세대 전쟁’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제4세대 전쟁은 정치적 의지가 군사적으로 우세한 힘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모택동의 개념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매스미디어와 국제적 네트워크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1차 인티파다로 진보하였다. 이러한 제4세대 전쟁의

주 7)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and high-yield Explosive : 화생방, 핵 및 고성능 폭발물

8) Bill Lind, als, “The Changing Face of War : Into the Fourth Generation”, *Marine Gazette*(1989)

주요 특징은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측면⁹⁾ 및 기타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전략적 측면**에서 이전에는 적의 군사력이나 군대의 복원능력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이었으나 제4세대 전쟁은 **적 정책결정자들의 심리에 직접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작전적 측면에서 제4세대 전쟁은 **전술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한다. 즉, 제4세대 전쟁의 작전적 지휘관들은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자신에게 가용한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보내기에 가장 적합한 메시지의 유형, 네트워크에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폭력적 또는 비폭력적 행동, 메시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피드백 시스템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전술적 측면에서 제4세대 전쟁은 **복잡한 저항도 분쟁의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 즉, 각종 메시지들은 전략적 주제에 기반하여 일상적인 사회에서 가용한 자원과 수단들을 사용하여 폭력적이거나 비폭력적인 전술적 행동으로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제4세대 전쟁은 시간적 흐름에서 **장기전**이며, 조직들이 **관념들로 통합**되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이 적 정치지도부의 심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표적들은 **다양한 청중들의 의견을 변화**시키는 이정표들이다.

이와 같은 ‘제4세대 전쟁’으로의 변화요인은 정치·경제·사회·기술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먼저 **정치적 요인**으로는 탈냉전이후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각종 국제기구나 테러 및 마약 단체, 심지어는 체제 불평불만 집단 등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제관계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경제적 요인**으로는 20세기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달**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을 통해 장거리 통신비용이 급격히 저렴해짐에 따라 국제무대의 행위자간에 통신을 위한 채널들이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셋째, **사회적 요인**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한 **각종 언론의 성장과 영향력**이다.¹⁰⁾ 이러한 영향력은 단순한

주 9) 군사적 논의는 통상 전쟁을 전략적, 작전술, 전술적 수준으로 구분한다. 전략적 수준에서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적 수단을 준비, 계획, 운용한다. 작전적 수준에서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작전을 계획하고 실시하며 전술적 수단들을 결합 및 연계한다. 전술적 수준에서는 전투 및 교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투력을 조직하고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전달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소위 “CNN 효과”라고 불리는 것으로 미디어의 힘에 의해 정책결정자들이 정책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¹¹⁾ 넷째, 기술적 요인으로 지난 60년간의 빠른 기술발전 속도는 ‘정보혁명’을 일으켰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지식의 특징으로 인해 보다 분산되고, 다차원적이며 비선형적이고 모호한 정보시대 위협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1세기 전쟁의 속성도 전통적인 계층적 조직보다는 네트워크적 형태의 조직을 촉진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군사력보다는 정보와 통신과 같은 무형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이 발발 시 제4세대 전쟁양상 가능성은?

제4세대 전쟁은 제2세대 또는 제3세대 전쟁양상으로는 더 이상 대적할 수 없는 약한 적이 강력한 적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전쟁을 해석하고 기술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한다면 제4세대 전쟁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아래와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하여 보았다.

먼저, 제4세대 전쟁의 정의이다. 제4세대 전쟁은 제3세대 전쟁으로부터 정치·경제·사회·기술적 요인에 의하여 진화한 전쟁이다. 우리나라 역시 제3세대 전쟁으로부터 제4세대 전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각종 요인이 성숙되어 있다. 또한, ‘진화¹²⁾’라는 단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순간 다른 전쟁양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달해지는 것이므로 제2세대, 제3세대 및 제4세대 전쟁양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주 10) 언론이 발달된 배경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탈냉전으로 인해 위협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군사력 사용에 대한 필요와 효용성을 두고 합법적인 논쟁 시에 미디어와 대중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이다. 둘째, 두 시간 이내에 영상을 전송한다는 ‘실시간 TV(real-time television)’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Peter V. Jackson, “Focus on the CNN Effect Misses the Point: The Real Media Impact in Conflict Management is Invisible and Indire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7, No. 2(March 2000), p.131.

11) Warren Strobel, “The CNN Effect”, *American Journalism Review*, Vol.18, No. 4(May 1996), p.32.

12) 일이나 사물이 점점 발달해 감.

두 번째는 이라크전 이후 북한군의 변화이다. 북한군은 이라크전 이후 이라크 테러전을 모방한 특수작전부대 운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방군단에 경비병사단을 창설하고, 사단급부대 경비병대대를 경비병연대로 증편하는 등 특수작전부대 증강과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남한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규모 도시 모형훈련장을 건설하고 특수작전과 연계한 도시 공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한반도의 작전환경이다. 연합전력은 대규모의 원정작전을 시행함에 따라 막대한 전쟁비용 지출과 더불어 많은 인명 손실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또한, 한국 내의 정보통신 기술 발달은 정보의 전파 및 제4세대 전쟁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지역 및 산악지형 등의 발달은 침투 및 은거에 유리하다. 더욱이 도심지 내 활동 중인 고정간첩, 친북성향의 주민과 단체, 밀입국자 및 귀순자 등은 북한군의 제4세대 전쟁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북한군의 제4세대 전쟁수행 양상에 대하여...

그렇다면 북한군은 어떠한 형태로 제4세대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이것은 크게 비대칭전력을 활용한 제한된 군사작전의 형태로서 개전 초 북한군의 공격과 아군의 반격작전 시 북한지역 수복작전을 실시할 때의 모습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개전 초 북한군 공격 시 전쟁수행 모습이다. 북한군은 비대칭전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만여 명 이상의 특수작전부대는 탈북 난민 속에 수천명씩 난민으로 위장하여 남한으로 지상침투를 실시함과 더불어 난파선 및 공기부양정 등에 의한 해상침투 등을 병행할 것이다. 일부 특수작전부대는 고정간첩 및 적 동조세력의 선전·선동 등과 연계하여 도심 내 취약지역에 은거하며 주변의 다양한 급조폭발물¹³⁾ 등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파괴 및 요인 등을 암살하여 사회혼란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의 전쟁수행 의지를 상실토록 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두 번째 북한지역 수복작전 시 전쟁수행 모습이다. 우리군은 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쟁발발 이후 최단기간 내 북한군의 전쟁지도부 및 주요 군사력을 격멸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60년 이상의 전쟁준비로 잘 준비된 지하대피 시설, 북한지역의 울창한 산악지형 및 북한의 주요 외교국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군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쟁을 장기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연합전력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국내·외에 반전여론을 도모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남한 내에서는 초기 공격작전 시와 유사한 형태로 계속적으로 테러전을 수행하는 반면, 북한 내에서는 산악지형을 고려하여 작전을 시행할 것이다. 또한 반미감정이 강한 각종 이슬람 테러단체 또는 반전 성격이 강한 국내·외 NGO 단체 등과 연계하여 제4세대 전쟁 양상의 연합작전을 수행하고자 할 것이다. 전쟁지도부가 한반도내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될 때에는 모택동이 인민전쟁을 위하여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 대장정을 실시한 것처럼, 북한군 지도부는 반미 감정이 강한 국가 및 단체를 떠돌며 대장정¹⁴⁾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제4세대 전쟁'에 대한 대응전략은?

이와 같은 북한군의 제4세대 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 것인가?

저자인 토마스 햄스 대령은 최우선적으로 '제반 국력요소들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순한 계층제보다는 기능적인 네트워크 체제로 방위력을 발전시

주 13) 급조폭발물(Improved Explosive Devices, IED) : 살상, 파괴, 공격 등을 목적으로 폭발성, 치명성 있는 부품을 결합하여 인위적으로 급조한 모든 폭발성 장치로서 쉽게 제작 및 은닉 가능하고 작전 유형 및 지역에 관계없이 활용 가능하며 최소의 공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14)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대대적인 공격에 대비하여 예멘, 시리아 등으로 본거지를 이동하면서 조직을 확산하고 전투력을 증강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노마드 테러리즘(Nomad Terrorism: 유목민처럼 이동하며 테러)'이라고 표현한다.

키고 이러한 제4세대 전쟁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다면평가제도(360 degree system), 각본없는 훈련, 전쟁사 교육 강화 및 작전조직에서의 근무기간 연장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이 우리 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겠는가?

‘전쟁은 일종의 인간의 교류 행동이다.’는 클라우제비츠의 금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저자의 개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작전조직에서의 근무기간 연장’과 같은 일부 주장은 원정작전 위주로 실시하는 미군의 현실을 기초로 주장한 대응방안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에서 몇 년 전에 시행 후 현재 시행하지 않는 다면평가제도 역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인재 육성’ 방안은 다음과 같은 2가지이다. 먼저 **우리 작전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상황을 도출하고 이를 훈련시킬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종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상황을 도출하는 기관이 편성¹⁵⁾되어야 하며, 이를 군 보수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 부대 훈련 및 평가 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2년 전 UFG 훈련 시 통제관으로 참가하였을 때 통제부에서 ‘북한군이 대포동 2호 미사일로 00을 공격하는 상황을 조성’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연합사령관이 매우 잘 하였다고 공개석상에서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군 역시 이와 같이 각종 상황을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임무형 지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하부대 지휘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지휘통제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여도 주변의 작전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적의 전쟁수행 모습과 의도를 모니터 및 유·무선 통신만으로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모습은 이라크전 시 미 제3사단의 전투수행 모습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 지휘관이 유연성 있게 판단하고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임무형 지휘의 지휘풍토가

주 15) 이러한 각종 상황을 연구하면 할수록 군인들이 군사의적 능력을 많이 배양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구성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올 7월경 아프가니스탄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파병하게 되는 우리군의 다양한 임무수행을 고려한다면 일부 조직의 경우 '작전조직에서의 근무기간 연장'이라는 저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 론

네트워크 중심전(NCW¹⁶⁾), 효과중심작전(EBO¹⁷⁾).....

우리군의 미래전을 준비하는 각종 문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이다. 하지만, '제4세대 전쟁' 또는 '네트전쟁'이라는 용어는 미래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상당히 생소한 용어이다. 이것은 우리군 역시 장차 및 미래전을 준비하면서 미군의 정보 기술 및 첨단기술무기체계에 의한 전투수행 모습만 생각한 나머지 분쟁 스펙트럼 중 일부분인 첨단기술의 재래전만 지나치게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여 본다.

「21세기 제4세대 전쟁(다윗의 새총)」은 미래전의 한쪽 측면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전쟁양상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준비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경종을 울린다.

미군은 2008년 야교 3-0 「작전(Operations)」을 발간하면서 전투지휘에서 '이해'의 단계를 추가하며 작전환경의 전후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작전변수(PMESII+PT¹⁸⁾)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미 육군이 이라크전 개전 이후 7년 이상의 전쟁 경험에서 도출한 중요한 교훈 중 한 가지인 불명확하고 다면화된 복합적인 위협은 기존의 관습적이고 단순한 정의를 허용하지 않으며, 재래식 냉전에서의 계획적인 형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 16) NCW : Network Centric Warfare

17) EBO : Effect Based Operation

18) PMESII+PT : Political, Military, Economic, Soc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hysical Environment, Time

이라크전 전례에 대한 깊은 연구 후 나날이 특수전부대의 편성을 보강시키고 있는 북한군의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군은 북한군이 재래식 전쟁인 제2세대 또는 제3세대 전쟁양상만 취할 것이라는 낙관에 빠지면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전쟁은 카멜레온과 닮았다.”는 클라우제비치의 금언을 되새기며 전쟁을 대비하는 많은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